

제68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8월 24일)

무령왕릉 발굴과 진묘수

김규동, 106호 백제실 18:00~18:30

1933년 8월, 공주고적보존회장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게 송산리에서 벽화고분이 발견되었으므로 조사원을 급파해 달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조선총독부박물관 조사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내부 유물도 몽땅 도굴된 이후였습니다. 이 현장은 가루베 지온(輕部慈恩)이라는 인물이 공주 일대에서 자행해 온 도굴행각이 발각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미 도굴된 벽화고분 내부에는 가루베 지온의 구두 발자국이 무수히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주고보 교사였던 가루베 지온은 1927년부터 1932년 말까지 738기의 고분을 도굴하였고 1940년까지는 약 천 기의 고분을 도굴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이 1969년 발간한 『백제와 나』라는 책에서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가루베 지온은 조사라고 했지만 이는 정식 조사를 허락받지 않은 도굴 행위였습니다. 송산리 고분군 또한 가루베 지온의 손길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29호분이라 명명한 무덤이 있는 것을 보면 이곳에서도 수십 기 이상의 고분을 도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굴된 벽화고분(6호분)의 북동쪽에 위치한 무령왕릉은 가루베 지온의 마수魔手에서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도교 지식이 해박該博했던 가루베 지온이 이를 벽화고분 보호를 위해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현무玄武의 주산主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6호분과 관련된 시설로 보았기 때문에 파헤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령왕릉이 온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발굴 결과 무덤길의 입구에 자리한 진묘수鎮墓獸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묘수는 말 그대로 무덤을 지키는 동물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도 무덤 바깥을 향해 특 튀어나온 눈을 부릅뜨고 떡하니 서서 무령왕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진묘수가 있어 가루베 지온이 무령왕릉을 6호분의 주산으로 판단하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국립공주박물관 뜰에는 이 진묘수를 약 7배 크기로 만든 모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1442년 동안 무령왕릉을 수호하였듯 무령왕릉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국립공주박물관을 오롯이 지키는 진박수鎮博獸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림1. 무령왕릉 출토 진묘수

특별전<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16)

정현,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아스테카’는 마야와 잉카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3대 문명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아스테카는 우리에게 꽤 낯섭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대신, 전쟁과 인신공양의 잔혹한 이미지와 스페인 정복자를 자신의 신으로 오해한 멸망 이야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소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으며 견고한 통치체제 위에서 번영하였습니다. 활발한 정복 활동과 공물 시스템은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였으며, 예술과 지식의 발전도 상당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아스테카를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아스테카의 역사와 문화의 실제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최근 연구와 발굴 조사 결과, 아스테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메리카 대륙 침략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종교를 강요하였던 유럽 정복자의 과장과 왜곡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시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잔혹함으로 치부하였던 그들의 희생제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스테카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시스템은 그들의 독특하고 복잡한 세계관과 우주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스테카 사람들은 신들의 희생으로 태양과 세상이 탄생하고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여겼으며, 인간 역시 이러한 신들 덕분에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전시에서는 먼저 아스테카 사회를 지배하였던 그들의 세계관을 소개한 뒤 자연, 경제, 전쟁, 정치, 예술, 지식, 제의 순으로 아스테카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봅니다. 이번 전시가 그동안 역사와 신화가 혼재하고 과장과 왜곡으로 가려졌던 아스테카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1. 지하세계의 신
믹틀란테쿠틀리



그림2. 비와 풍요의 신
찰치우틀리쿠에 화로



그림3. 비의 신
틀랄록을 그린 항아리



그림4. 바람의 신
에에카틀

조선백자에 나타난 외래요소

박혜선, 305호 분청사기·백자실 19:00~19:30

조선백자는 고령토Kaolin라 불리는 고운 백토로 형태를 빚고 문양을 장식한 후 유약을 입혀 1,250~1,300℃ 이상의 고온에서 환원번조還元燔造한 치밀한 도자기입니다. 조선은 예와 의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국가였기에 국가 의례 등에 사용하는 기물들을 통해서도 왕실의 권위와 명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왕실에서는 15세기 후반 경 사옹원司饔院 분원分院이라는 관영 가마를 설치하여 수준 높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관요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 도마리 가마터에서는 청화 안료를 테스트한 시험번조 편이 출토되기도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도자기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의 흔적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의례와 격식에 맞추고자 노력했던 왕실백자는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예컨대, 문인취향의 산수문양이 유행하기도 하고 장수와 부귀영화를 염원하는 길상무늬가 주를 이루는 장식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을 통해 들어온 외래 요소가 가미된 문양이나 새로운 기형의 도자기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유럽의 유리병을 방제한 기형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백자 사각병四角瓶을 들 수 있습니다.

백자 사각병을 처음 만든 곳은 이웃 나라 중국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백자 사각병은 중국의 유럽 수출용 자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을 선두로 중국에 진출한 유럽은 초기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자기를 그대로 수입해 사용했으나, 점차 그들의 취향에 맞는 도자기를 만들어달라고 중국에 주문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의 회화 작품 속에는 유리제 사각병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들의 일상생활 용기인 유리병을 방제한 도자기 제작을 의뢰한 것이 백자 사각병의 탄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명말청초의 해금령이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유럽 수출용 도자 제작의 주체가 일본으로 이동하였고 조선후기 일본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조선에서도 백자 사각병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림1. 백자 사각병
조선 19세기



제68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8월 24일)

유적으로 살펴 본 고고학 이야기

최정아, 101호 구석기실 19:00~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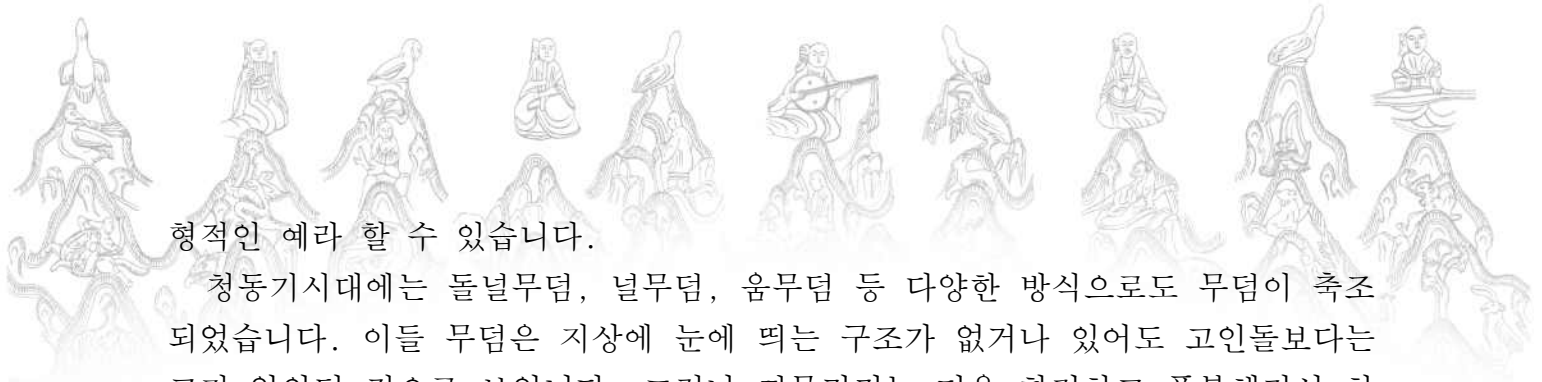
고고학은 과거 사람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을 통해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석기, 토기, 청동기 등의 유물은 크기가 작고 이동이 가능해 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물이 출토된 집자리나 무덤과 같은 유적은 원래 위치에서 움직일 수 없어 해당 자리에서 보존되거나 일부는 공사 등의 이유로 파괴되기도 합니다.

유물은 그것의 용도나 제작방법, 조형미 등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출토된 ‘맥락’을 모른다면 고고학적 연구 가치는 그다지 높지 못합니다. 박물관 전시품 대부분은 유물이지만, 출토된 유적을 알아야 유물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유적은 집자리, 무덤, 동굴, 도로, 마을 등 종류나 규모가 매우 다양합니다.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조개무지(폐총)를 들 수 있습니다. 신석기 사람들은 강이나 바닷가에 살면서 다양한 해상자원을 이용하였으며, 굴이나 조개껍데기가 쌓인 조개무지를 전국 해안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조개무지는 쓸모를 다한 물건들이 버려진 폐기장으로, 물고기나 동물의 뼈, 부러진 낚시 바늘과 작살, 돌도끼 등 다양한 유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퇴적과 삭평이 반복되어 보통 깊이가 수 미터에 달하며, 여기에 집을 짓거나 무덤을 만들기도 하는 등 당시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입니다.

청동기시대에는 농경이 확대되고 정착 생활이 일반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또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부와 권력이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되면서 계층이 나뉘어졌습니다. 특권층은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청동검이나 거울과 같은 위세품을 소유하기도 하고, 고인돌과 같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 고인돌은 지상으로 드러난 거대한 덮개돌과 그 밑을 받치는 고임돌, 시신을 매장하는 무덤방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 등으로 구분되는데, 북쪽에서는 탁자식이, 남쪽에서는 기반식과 개석식이 주를 이룹니다. 고인돌은 거대한 바위를 떼어내어 무덤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수십, 수백 명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인돌 축조는 부족장의 권력과 협력체계를 보여주는 가장 전



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시대에는 돌널무덤, 널무덤, 움무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덤이 축조되었습니다. 이들 무덤은 지상에 눈에 띄는 구조가 없거나 있어도 고인돌보다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껍묻거리는 더욱 화려하고 풍부해져서 하나의 무덤에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 각종 이형청동기, 옥으로 만든 장신구, 돌검 등 다양한 종류를 묻었습니다.

원삼국시대에는 철기가 널리 보급되며 농경이 더욱 발달하게 되고, 토기는 물레로 성형해 가마에 구운 회청색토기가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창원 다호리 유적, 천안 청당동 유적, 경주 탑동 유적 등 이 시기에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무덤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무덤군이 많이 확인됩니다.

창원 다호리 유적은 낮고 편평한 구릉에 수십 기의 무덤이 축조된 유적입니다. 대부분 구덩이를 파고 나무관을 묻은 널무덤으로, 나무관 아래 껍묻거리 구덩이를 따로 만든 것들도 보입니다. 이 유적은 낙동강 하류의 습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붓, 부채, 대바구니 등 각종 칠기와 목기가 썩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호리 유적에서 발견된 칠기는 중국의 것과는 달라 우리나라 고유의 칠기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대국가로 체제를 갖추어가며 영토의 확장과 축소를 반복하여 한반도 내에서 각축을 벌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은 한강 유역입니다.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장악한 백제는 비옥한 토지와 강을 이용한 교통로를 바탕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몽촌토성, 풍납토성 등 백제의 도성과 고위층의 무덤인 석촌동 고분군은 초기 백제의 성장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의 정복 정책으로 국력이 크게 성장하며, 점차 한반도 남쪽으로도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임진강유역 등 경기북부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에서 고구려의 군사유적이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용마산, 아차산 일대의 보루는 백제 도성과 마주한 당시의 치열했던 대립 양상을 보여줍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발전하였지만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해로를 확보하게 되었고, 고구려·백제를 압박하며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